

〈宗訓〉

忠孝 · 德禮 · 勤謹 · 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 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琚洙

編輯人兼主幹 韓東元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179) 서울시 중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북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 720-6370~1 FAX : 720-9215



2006 병술년 신년사

사랑과 화합, 동참, 도약의 해로

병술년(丙戌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 2006년은 우리 청주한씨중앙총친회가 발족(1946, 음10, 1) 60주년이 되는 회갑을 맞고, 「청주한씨보」가 창간(1976, 11, 1) 30주년의 연륜(年輪)을 맞는, 그 어느해 보다도 뜻 깊은 해입니다.

국내의 100만 일가 여러분, 그리고 중앙총친회, 각 지역총친회, 송파회, 청한장학회, 해외총친회 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는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총친회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동참해주신 모는 일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총친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급습한 이상한파와 폭설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호남과 충청, 제주를 비롯한 모는 지역의 일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속히 원상으로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내의 일가 여러분, 지난 올유년은 경제지표상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양극

화 심화에 따른 박탈감과 상대적인 상실감으로 의욕도 없고, 心身도 함께 고달팠던 한해였습니다.

우리들의 중앙총친회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없었던 미진(未盡)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각 지역과 송파의 임원급 일가들의 좀 더 적극적인 총친회에 대한 사랑과 동참이 아쉬웠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난해 시조묘역에 장학기금 20억원 달성기념비를 세우는 쾌거(快舉)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여러 사업중의 일부이기는 하나지만 이는 명분거족, 삼한갑축의 후손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하나의 기록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지난해에 내세웠던 ①시조묘역 성역화 및 역사전시관 건립 ②장학회관 건립 ③제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완성의 기반 구축과 함께 ④복지재단 설립 ⑤제2의 장학기금 기념비 건립 ⑥속보에 등재되지 않은 일가들의 뿌리찾기운동 ⑦청장년 조직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이사업들은 1~2년내에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만 일가들 중에서 누가 해도 해야 할 한분의 숙원사업들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첫 삽질만 해놓으면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임원급 일가들이 솔선하고, 일가들 모두가 송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사랑」과 「화합」의 정신으로 「동참」한다면 우리 총친회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한분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병술년」을 「사랑, 「화합, 「동참,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불과 한달동안에 10억원의 장학기금이 기탁되어 기존의 10억원과 합쳐서 시조묘역에 장학기금 20억원 달성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우리 일가들이 「사랑」과 「화합」의 정신으로 「동참」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신과 마음으로 단합하고 동참한다면 우리는 오는 11월21일(음10월1일)의 시조세향일에 또 다시 자랑스러운 제2기념비를 시조묘역에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진행중인 「제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구축작업도 빠른 속도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는 송파가 「대동족보」제작에 「동참」해야 함은 종원(宗員)의 당위(當爲)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송파속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관이 같은 한 성씨를 대표하는 것은 오직 「대동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변화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동참하는 의지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중앙총친회와 한분을 도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화목, 「동참」은 바로 기여(寄與)입니다. 기여는 행복자수를 높여준다고 하며,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증복(增福)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文豪) 「톨스토이」는 「한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한분의 모는 일가들도 올해의 마지막에 가서, 새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모는 일들이 뚝뚝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중앙총친회 이사회 개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06년도 사업계획안 의결



(元教일가 촬영)

중앙총친회(회장 琚洙)는 지난해 12월20일 상오 서울 용산 소재 국방회관에서 17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2005년도 대비 1억6,920만원이 축소된 2억6,581만원 규모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3개항목의 사업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2면

星燮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琚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래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학기금 20억원 달성 기념비를 시조묘역에 세우는 기적 아닌 기적을 이루었으며, 이는 거액을 출연한 분들을 위시하여 전국의 모는 일가들이 동참한 결실”이라고 감사를 표시하고 “총친회는 바로 한분의 명예, 긍지, 자부심이므로 모는 일가들이 동참하고 협조하여 어느 성씨보다도 앞서가는 역량과 힘을 배양해야 할 것이며, 다시 50억원 달성 기념비를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역설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향토사학자 김명환박사의 ‘부강왕릉의 유래’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사회, 인터넷족보 활성화 방안 채택

수단비 8,000원 · 지역총친회에서도 수단 접수

중앙총친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20일 2006년도 예산안 승인에 이어 ‘인터넷한글대동족보’에 입력할 수단비를 현실화하고, 수단 접수창구도 지역총친회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2면, 8면

중앙총친회는 이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터넷속보에 입력할 수단비를 일률적으로 8,000원으로 변경(인건비 상승으로)하여 수단을 접수하고 있으며, 각 지역총친회에서도 접수업무를 개시했다.

다만 지역총친회에서 1차로 접수 받는 경우, 각 지역총친회는 수단비 8,000원 중 3,000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원과 수단을 중앙회에 입금하도록 했으며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총친회로 직접 접수시에는

8,000원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기존의 수단비는 1인당 5,000~10,000원을 받아왔다.

이 활성화 방안은 ①중앙총친회에서만 접수하던 방식을 바꾸어 각 지역총친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 다원화 하므로써 일가들의 접수를 쉽게 하고 ②수단접수가 부진한 인터넷한글대동족보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각 지역총친회가 수단 접수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각 지역 일가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수단 신청서, 작성방법, 수단비 납부방법 등은 중앙총친회와 각 지역총친회에 문의하거나 한씨홈페이지(청주한씨중앙총친회 또는 www.cheongjuhan.net)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2006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100만 일가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陽命 상임고문	寬熙 인 천 시	章璵 총 북 도	東錫 정 당 공 파	善鍾 조 직	贊熙 전 관 악 구 회 장	萬熙 “	成龍 “	吉洙 “
昇洙 명예회장	判鉉 광 주 시	大燮 제 수 도	明喆 분 열 공 파	德洙 재 정	在瑞 서 대 분 구 회 장	陽命 “	孝東 “	其洙 “
琚洙 중앙회장	德求 대 전 시	熙相 재 일 본	有錫 문 계 공 파	愚仙 분 화	元九 전 미 I A 회 장	相瑞 “	泳教 “	相範 감 사
◆부회장(지역회장)	萬愚 울 산 시		鮮教 충 성 공 파	百勝 장 학		希天 “	基虎 “	百勝 감 사
希天 삼계위원장	益洙 강 원 도	◆부회장(종파회장)		東元 송 보	◆(재)청한장학회	萬益 “	判鉉 “	
相瑞 서울 시	學洙 경 기 도	春植 예 민 윤 공 파	◆전담 부회장	成龍 정 년	琚洙 이사장	光鎬 “	奎喆 “	
五作 부산 시	基仁 경 남 도	喆熙 사 속 공 주 보	星燮 총 부	希耕 여 성	星燮 상임이사	明洙 “	章璵 “	
奭鎬 대구·경북	泳教 전 북 도	敬洙 서 원 군 송 회	鳳洙 기 획		春植 이 사	愚仙 “	五作 “	
	相旭 충 남 도	煥 충 간 공 파	萬熙 총 부	◆감 사	太洙 “	周鎬 “	相旭 “	

시조묘역 조경사업 승인

중앙종친회 회장단회의

중앙종친회(회장 瑞洙) 회장단은 지난 11월24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국방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2005년도 세입·세출 현황(11월20일 현재)을 보고 받은 다음 의안으로 부의된 ①시조묘역 조경사업 추진방안 ②시조묘역 납골당 설치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조묘역내 납골시설 조성안'은 보류하고 시조묘역 조경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현수회장은 납골시설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①일가들만의 납골시설이 조성되면 그 자손들이 시조묘역을 찾게되어 시조세향 행사도 활기를 띌 것이며 ②합아버지

뚝안에 자손들이 묻인다면 시조께서도 흐뭇해 하실 것이고 시조뚝에 안치되는 자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希天삼재관리위원장은 "시조묘역은 아무나 모시는 곳이 아니며, 풍수지리상으로도 아무 사람이나 쓰는 자리가 아니므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현수회장은 "시조묘역조경에는 2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우선 올해안에 약 1,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전자작업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종친회 2005년 송년회 (元敎일가 촬영)

중앙종친회 2005년 송년회

중앙종친회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이사회에 이어 2005년 송년회를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170여명의 일가들은 다사다난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해의 시름을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으로 훌훌 날려 보내고 새해의 행운을 다짐했다.

배뱅이굿 보존회 박성현부회장과 단원들의 경기민요와

배뱅이굿 공연은 송년회의 흥취를 한층 북돋았다. 노래자랑과 경품추첨에는 꾸집한 상품이 걸렸으며, 특히 경품추첨에서는 전북종친회 泳敎회장이 1등에 당첨, LG 29인치 평면TV를 차지하는 최고의 행운을 잡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새송이버섯 1박스(2kg)씩 증여되었다.

“정성 어린 헌성(獻誠)에 감사 드립니다”

2006년 1월 23일부로 계좌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내외 일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성금, 회비(임원), 장학기금, 종보(宗報)구독료 등의 헌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손들을 위해 중앙종친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임원들의 회비와 80만 일가들의 헌성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회비, 일가들의 헌성금과 종보구독료의 헌성이 활성화 된다면 찬란한 청주한씨의 전통을 보존·발전 시키고, 자손들을 위해 추진중인 중앙종친회의

여러 역점사업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며, 한분의 위상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헌성은 우리 청주한씨 명분을 이어갈 자손들의 장학사업에 지원될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이고, 명성을 남길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일가 여러분!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회관 건립을 위해 장학기금을, 종친회의 활성화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성금, 회비, 종보구독료를 헌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재)청한장학회

계좌번호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휘호(揮毫)



瑞日照來群陰自退
서일이 비쳐주니 군음의 자퇴하네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 ①시조 위양부군, 사위부군 세향(11월21일, 음 10월1 일)
- ②시조 탄강지 분화재 지정 추진(고증자료 수집중)
- ③시조부군 제단비각 건립 추진, 1605년 제단비수립 후 1990년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로 지정되었으나 타인의 발 복판에 방치되어있어 비각을 건립하여 보존 할 계획(현재 충북도에 비각 건립 보존 요청서 제출중)
- ④시조묘역 주변에 거주하는 16세대를 소개시켜 역사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며, 입수된 충청공의 '유촌유고' 번역 등 전지자료 수집에 역점을 둔다.
- ⑤부장왕릉, 시조묘역, 사위단, 무능정, 방정, 용지(연못), 세일제 본재, 동서재 등 유적 보존 관리. 특히 시조묘역의 잔디와 수목 관리를 위해 현재 1천만원의 예산으로 작업이 진행중이며, 부장왕릉의 석물을 철거한 익산시를 상대로 한원상회 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
- ⑥제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 구축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2005년12월20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인터넷족보 활성화 방안에 따라 모는 지역종친회가 수단 접수에 직접 참여하고, 종파를 초월하여 모는 종원들이 적극적으로 수단신청에 참여토록 협력을 독려하고 홍보에 수력한다.
- ⑦장학회관 건립사업 계속 추진. 시조묘역에 건립한 20억원 달성 기념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해외 거주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지역 종친회를 순방한다.
- ⑧청주한씨 역사인물고를 편찬한다. 역사인물편, 근·현대 인물편, 현존인물편으로 분류하여 편찬한 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 ⑨(재)청한장학회 제6회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 4월22일(토) 시조묘역에서 대학생 31명에게 100만원씩, 고교생 20명에게 50만원씩 수여한다.
- ⑩장학기금을 부동산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⑪종보 구독 일가배가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공직자, 기업인, 의사, 변호사, 금융인, 송개사등 전문직 일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한다.
- ⑫각 시·도종친회 순회강연(昇洙명예회장)

익산시 쌍릉역사 왜곡 · 짜맞추기 의혹

무강왕릉 확인 묘지증명 발급하고도 단전. 한민일보, 사설 · 특집기사로 익산시를 고발



전북 익산의 쌍릉이 마한의 호강왕릉(무강왕릉 · 고려사절요 권지24 기록)설과 백제 부왕릉(서동)설로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확실한 고증을 거쳐 정설화 시켜야 함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쌍릉을 백제 유적으로 못박는 식의 각종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언론

계와 사학계 그리고 의식있는 계층에서 역사왜곡에 다름이 없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민일보가 보도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민일보(韓民日報)는 2005년11월9일자, 10일자, 11일자, 15일자 1면, 2면, 3면, 15면 등에서 사설과 특기사,

특집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특집으로 집중 보도하면서, 특히 사설(전분 별행)을 통해서 “익산시의 비틀린 쌍릉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일보는 11월9일자 1면 톱기사에서 “익산시 ‘역사 짜맞추기’ 의혹”, 3면 톱기사에서 “쌍릉 왜곡 의문 속출”이라는 제목하에 “익산시는 2004년5월 사적 제87호인 익산쌍릉의 석물과 석양, 상석 등 6점의 석물을 쌍릉의 원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6개월 후에야 사후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졸속 행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실은 익산시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철거해야 할 쌍릉 앞 석물을 승인 받지 않은 채 철거한 처사는 미숙한 행정처리였다”고 문화재청 관계자가 확인하셔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15일자 15면에서는 “쌍릉묘지 증명원 물

랐다” “익산시 1957년 청주한씨 분증 공식분서 발급 밝혀져” 제하의 기사에서 “14일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57년2월1일 쌍릉을 시조묘로 관리해 오고 있던 청주한씨 분증에서 익산군 팔봉면에 묘적증명원을 제출, 팔봉면이 같은 해 2월23일자로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증명원을 공식분서로 발급해 줬다”고 밝히고 “익산시는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석물을 철거하는 등의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 신문은 “청주한씨 분증에서는 묘지증명원까지 발급해 준 익산시가 이제와서 쌍릉이 백제 부왕릉이라며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40여년전에 발급해 준 묘지증명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며 각종석물을 철거한 뒤에야 묘지증명원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익산 쌍릉은 청주한씨 시조왕릉”

중앙총친회, 한민일보에 전면 반론광고

중앙총친회는 전북 익산시가 익산 쌍릉의 석물을 철거하는 등 쌍릉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1일자 한민일보 3면에 “익산 쌍릉은 청주한씨 시조왕릉이다”는 표제로 전면 광고를 게재하여 익산시의 주장에 반론(反論)을 제기했다. 이 광고는 ‘익산시 역사 짜맞추기 의혹’ ‘익산시의 비틀린 쌍릉 역사 왜곡’ 표제의 한민일보(전주에서 발행) 지난해 11월9일부터 11일 사이의 1,2,3면 기사에 대해 익산시가 11월22일 동 신문에 게재한 반론에 대한 재발본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중앙총친회는 이 재발본을 통해 ①쌍릉역사 왜곡에 대하여 ②쌍릉의 연대와 피장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결과 ③고려사절요는 정사(正史)라는 3개의 소제목아래 역사적 문헌들을 내세워 익산시의 역사왜곡을 지적한 다음, ①익산시는 청주한씨 중앙총친회와 지역총친회의 이

전 및 철거동의서를 왜 사전에 받지 않았는지 ②익산시는 쌍릉이 무강왕릉이 아니라는 국가의 공인된 사료나 공증서를 왜 제시하지 못하는지 ③익산시는 왜 왕릉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법적관리인)를 제시하지 못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총친회는 또 쌍릉은 청주한씨총친회가 대대로 관리 · 보존하고 매년 제례를 올리는 시조왕릉임이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특히 매장 및 묘지등(장묘)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 변경), 제10조(관리인 변경), 제13조(도면대장 또는 서류비치), 제14조(조사와 보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시설묘지 등의 법령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중증분증의 묘지인 바, 익산시는 하등 관련이 없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므로 철거한 석물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지면을 통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익산시의 비틀린 쌍릉역사 왜곡”

〈한민일보 2005년11월10일자 사설〉

우리 고장 출신 작가 최명희선생은 역사에 대해 “타끌 같이 작은 일도 온몸을 열어놓고 오관(五觀)을 다하여 마음으로, 느낌으로 받아 들인다면 역사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한몸을 이루어 체화(體化)될 것”이라고 불후의 명작 ‘혼불’에서 정의했다. 그의 역사관이 남다른 것은 “아무리 작은 것도 역사라면 온몸으로 바로 보아야 한다”는데 있다. 익산시가 사적(史蹟)87호로 지정된 ‘쌍릉’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익산 쌍릉은 그동안 마한 호강왕릉이나, 아니면 백제 부왕릉이나를 놓고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고증이 현재진행형인 중요문화재다. 그러나 익산시는 문화재청 사전심의도 없이 쌍릉 주변에 석물 여섯점을 마음대로 처분했다. 이에 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6개월이 지난 뒤늦게야 대학교수에게 의견을 받아 문화재청 조화를 의뢰했다. 익산시의 문화재에 대한 몰상식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학계는 익산시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석물 철거가 ‘쌍릉은 백제 부왕릉’이라는 등식 만

들기와 한편으로는 미륵사지 복원과 맞물려 백제왕도(王都) 익산천도설을 합리화하기 위한 무모한 배경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 이유는, 익산은 ‘백제왕도’라는 부형의 역사를 관광상품화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근거로 본다. 학계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익산시 당국이 “석물이 사적에 포함되는 줄 몰랐다”고 시인한 것과 사후의 문화재청 의견조화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학계는 “익산시 의대로 역사의 오류가 기정사실화 되었다면 쌍릉은 800년 뒤로 후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역사적 진실 찾기는 유물유적의 세밀한 고증에서 비롯된다. 최명희선생의 말처럼 개인의 역사적 진실찾기도 온몸으로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한 왕조의 진실찾기에 이렇듯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는가. 익산시 문화재 관리행정의 몰이해는 자칫 익산 역사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쌍릉 석물은 이제라도 복원되어야 마땅하다. 유물유적의 가치는 있었던 자리에 옳듯이 있어야 역사적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병사공(兵使公) 신도비 제막

5도 절도사 · 3도 통어사 등 역임



시조하 22세 병사공(兵使公)의 신도비 제막식이 지난해 11월6일 오전 경남 진주시 신안동 석갑산 등산로 중턱에 있는 공(公)의 제실인 영묘재(永慕齋) 앞뜰에서 거행되었다. 직손과 방손(傍孫), 서부경남지역의

유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친 최인찬 한학자의 사회로 진행된 제막식은 성환덕씨가 고유제 헌자(獻者)로, 이병도씨가 집례, 하대규씨가 축, 이병만씨가 집사, 하행락씨가 비문낭독, 善愚, 丁愚, 官愚, 基洪, 基

福, 基元, 洪錫일가와 정한근, 김시환 씨등이 제막위원으로 열과 성을 다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신도비 크기는 길이 9자, 몸체가 10자이다. 병사공은 조선조 숙종, 경종, 영조에 걸쳐 40여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병마수군 절도사로 7도를 두루 거쳤으며, 경기도 수군절도사 겸 3도통어사, 금위별장, 용호별장, 수어승군, 금위승군, 총계승군 등 5위도총부 부총관을 4번이나 역임했다. 72세로 세상을 떠나자 공을 추애한 영조는 제문을 내려 ‘근심되고 의심 나면 경에게 일임을 했고, 단기로 진에 다다를 때는 충성과 용맹을 볼 수 있었네’라고 칭송했다.(공의 11세손 萬俊)

「석봉 한호의 생애」와「유묵집」

석봉한호선생기념사업회에서 간행



「석봉 한호의 생애」(石峯 韓濩 · 1543~1605)가 「석봉한호유묵집」(遺墨集)과 함께 2권 1집(幀)으로 지난해 11월11일 간행되어 국보적인 천하명필 한석봉선생의 불후(不朽)의 업적과 걸작유묵을 재조명하는 전기를 마련

했다. 李丙泰편저 (사)석봉한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 李敬遠) 발행으로 간행된 「석봉한호의 생애」는 400쪽의 호화장정으로 제작되었으며 민족문화한본, 석봉의 가계와 어머니의 교훈, 임진왜란 극복과 외교사절활동, 교유 · 서맥 · 필적, 여류시인들과의 인연, 「한경홍진숙」과 한호의 사상, 제문과 묘갈명(墓碣銘)에서 찾는 석봉한호 등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책 「석봉한호유묵집」은 권두에서 석봉을 상징하는 천자문(千字文)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불후의 명작유묵들을 수록하고 있다.

장학기금 20억원 달성 기념 자축연

제2·제3의 기념비도 세우기로 다짐



장학기금 20억원 달성 기념 자축연(元敎일가 촬영)

중앙총친회(회장 琚洙)는 지난 11월24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국방회관에서 청한장학기금 20억원 달성 기념 축하연을 갖고 지난 11월2일 시조묘역에서 제막된 기념비에 이어 제2·제3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장학회관도 건립되기를 축원했다.

「제7교 인터넷한글대동족보」편찬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편찬위원들과 일가들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星燮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축하연에서 현수회장이 청한 장학회 발전과 장학기금 조성에 공이 큰 湯命후원회장(2억원), 孝東고분(1억원), 春植예빈윤공회장(2억원), 相旭충남도회장(1억원), 其洙전 충남도회장(5천만원), 吉洙(5천만원)회장을 소개하자 일가들은 만장의 박수를 보냈으며, 참의공파와 基淵전경남도회장은 현장에서 각각 100

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현수중앙회장 겸 청한장학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기금을 기탁한 모는 일가들에게 감사하며, 50억원이 조성되면 장학회관이 건립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많은 일가들이 기금조성에 참여하여 제2·제3의 기념비까지 시조묘역에 세워지도록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湯命청한장학후원회장은 축사를 통해 “20억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모는 일가들에게는 물론 특히 거액을 기탁하여 단위장학회를 설립한 일가들에게 감사하며, 10월 한달동안에 10억원이 기탁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모는 일가들이 동참한다면 50억원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대동족보 전산시스템 개선안

족보편찬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의결

제7교 인터넷한글대동족보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용산 소재 국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7교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전산시스템 개선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년동안 진행해온 「제7교 인터넷한글대동족보」구축과정에서 들어난 일부 불편한 점을 보완하여, 실시간으로 수단 입력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의(附議)된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편찬위원들은 N-Korean(주)측으로부터

터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전산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시연(試演)을 보았다. 이 전산시스템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된 후 우리 총친회의 제반 여건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孝東고분과 相瑞서울시회장은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제작에 모는 일가들이 참여하도록 각파에서 협조해야 하며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어야 한다”고 독려했으며 특히 효동고분은 “세마공파는 2004년도에 이미 신청을 전부 끝냈다”고 밝혔다.

2006년도 정기총회 공고

일시 : 2006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전우회관 (02-709-3004)용산구 삼각지, 舊육군본부
안건 :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2.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3. 임원개선
4. 기타사항

2006. 1.

청주한씨중앙총친회

琚洙 중앙회장 추도사

100만 일가들의 뜻을 모아 소은(紹隱)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모두 선생의 부음에 크게 놀랐습니다. 비록 한분에서 105세의 최고령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해 1월 국방회관에서 중앙총친회가 베푼 신년교례회를 겸한 105회 생신축하 때만 해도 수 많은 일가들의 축하인사를 받으면서 축하객들과 기념촬영을 했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총친회의 각종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놀라운 건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생의 별세 소식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년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용모가 수려하여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속에 성장한 선생은 고위공직에까지 올라 성실함과 결단력, 후덕한 성품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보행 때는 껌뭉이 흔들릴 정도로 귀가 커서 충남 제일의 부처님 귀라는 말까지 들었던 선생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처럼 귀가 크면 후덕하다는 옛말과 같이 많은 덕을 베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근무하던 37세 때의 봄, 전국적인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양식을 찾아 충남지방으로 몰려왔을 때, 그 참상을 보고 담배 피우는 것조차도 사치라면서 금연을 결심하고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일화까지 남긴 선생의 결단력과 덕망은 길이길이 모는이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마침 올해에도 총친회 차원의 106세 생신 축하회를 준비하고 있던 참에 생신일을 불과 3주를 앞두고 이렇게 홀연히 유명을 달리 하시니 애통한 마음 더욱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이 잠 드소서.

청주한씨중앙총친회 회장 韓琚洙

紹隱 韓相賢 고문 별세

한문에서 최고령 ... 105세



상현(1901~2005)고문이 지난해 12월23일 서울삼성병원에서 10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한문에서는 최고령의 이르신으로 안양공파 시조하 32세손이다.

상현고분은 1901년12월19일 충

남 청양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에서 중등학교(중동고교 전신)를 졸업하고, 서울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해방 후 부여군수, 아산군수, 홍성군수를 거쳐 대전시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대전에 거주할 때는 충남총친회장으로 종사에도 봉사했으며, 서울에 이사한 후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앙회 고문으로 총친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일가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슬하에 1남6녀, 친손자 1명, 친손녀 1명, 외손자 7명, 외손녀 11명 등 20명의 손자·손녀와 19명의 증손자·증손녀를 두고 있다.

春植회장 부인 별세



춘식(예빈윤공회장)중앙회 부회장의 부인 김창순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급환으로 별세했다. 김씨는 부군인 춘식회장이 장학기금 2억원을 기탁하는 등 총친회에 기여하는데 내조를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한산악회에도 음식을 마련하여 참여하는 등 여성회원들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유나일가 하버드대학 합격

한분의 귀여운 딸 유나(18·민족사관고교 3년)일가가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에 합격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후 초등학교 1학년 때 귀국한 유나일가는 중3, 고3 때 치른 토플(TOEFL)에서 모두 300점 만점, 고2 때 치른 SAT(미국대학입학시험)성적도 1580점(1600점 만점)을 받을 정도로 뛰어나다.

한철일가 해사 남자 수석합격

한철(19)일가가 해군사관학교 남자 수석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경남 마산고교 출신인 철일가는 분정공파 31세손 基淵 전 경남총친회장의 친손자이다.

이조실록중 충정공 관련부분 출판

충정공(명종9년 1554~광해군6년 1614)은 조선 중기 선조(宣祖)대에 활약한 문신으로 육조(六曹)의 판서와 우의정을 역임했으며, 임진왜란 때는 사신으로 명나라 황제를 설득하여 원병을 끌어오는 등 국가를 수호한 공으로 선부1등원

종공신에 오르기도 한, 전시관에 비쭈있게 모셔야 할 훌륭한 한문의 조상이다.충정공(忠靖公·휘 應寅)과 종회(회相瑞)는 지난해 이조실록 중에서 충정공과 관련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충정공은 현재 중앙중친회가

추진중인 역사박물관에 모실 가장 중시적인 선조의 한문으로, 상서회장과 상근총부 등 많은 종현들이 이 간행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종회 相根총부)

고려대 교수 昇洲고문 고별강의 장관·주미대사로 많은 외교업적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한 고려대 교수 승수(승양)종친회 고문이 지난해 12월8일 고려대인촌기념관에서 수강생들과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외교란 무엇인가-통념과 실제”라는 주제의 고별강의를 끝으로 교단을 떠났다.

승수고문은 고별강의에서 “민주국가에서는 외교가 대중영합주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외교란 완전하고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상호적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승수고문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한 후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를 거쳐 1978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외교통상부장관(1993~94), 유엔 키프로스특사(96년), 주미대사(2003~04)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많은 외교업적을 남겼다.

相鳴일가, 철도공상회원들로부터 찬사 생활원호금 영구 지급에 결정적 역할



(사)국가유공자 전국철도공상회(公傷會)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상홍일가는 지난해 12월15일 회원들에게 생활원호금을 영구히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한 정관을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철도공부원사회에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상홍일가는 1956년 교통부 육운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불의의 직부상 사고(공상)로 73년 퇴임한 후 88년 전국

철도공상회 서울지부장을 연임했으며, 96년부터 (사)국가유공자 전국철도공상회 회장을 4번이나 연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상홍일가가 2,500여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데 대한 회원들의 눈독한 신임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가 80억원 상당의 회관(대지 220평의 5층 빌딩)도 마련하여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주한 미공군사령관 ‘韓雄飛’로 작명

주한 미7공군 제1 트렉슬 사령관이 한씨 성으로 ‘韓雄飛’(한웅비)라는 작명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10일 오후 주한 미7공군사령관에서 열린 ‘한미 친선의 밤’ 행사에서 제

리 트렉슬러 사령관은 원로 서예가 허룡씨로부터 한국식 이름으로 작명된 ‘韓雄飛’라고 쓰여진 족자(額子)를 전달받고 크게 기뻐했다.



경희일가, 스팀청소기로 사업 대성 청한장학후원회 회장 한 양 명

2001년에 생산을 시작한 스팀청소기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여성기업가로 대성(大成)했다.

경희일가는 이화여대 불문과 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경영학석사학위(MBA)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호텔, 컨설팅회사, 무역회사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국, 공채시험을 거쳐 교육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96년 결혼 후 분득 “결례질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집을 담보로 마련한 8,000만원을 밑천으로 스팀청소기 회사를 시작했다. 2년만에 신제품 3,000개를 만들었으나 내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량 폐기하는 불운도 겪었다. 그러나 품질과 편리성이 인정되고 2004년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을 타면서 2005년에는 매출 8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직원수 120여명.

재미 언론인 우성일가, ‘영웅 김영옥’ 퍼내 주인공은 6·25 참전한 미육군 예비역대령

재미 언론인 우성(49·뉴 아메리카 미디어 한국부장)일가가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최고 부공훈장인 태극부공훈장을 받은 한국계 미육군 예비역대령 김영옥(86)씨의 삶을 정리한 책 ‘영웅 김영옥’을 퍼내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우성일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강원도 소양강 등 전적지를 20여회 답사했으며, 각종 군사자료 2만여점을 섭렵했고 군사전문가 등 300여명을 인터뷰했다고 한다. 김영옥씨는 2차대전 때 로마해방전의 주역으로 공을 세워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최고부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우성일가는 AP통신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基龍일가 해병대령으로 진급

충성공파 31세손 基龍일가가 지난해 11월7일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충남 온양이 본적인 기룡일가는 해군사관학교 38기로 졸업한 후 해병으로 병과를 변경,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거쳐 해병 1사단 작전참모로 복무중 진급, 국방대학원에 입학했다. 부친 泰炫일가는 관악구종친회에서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각장애 찬수일가 마라톤 완주



시각장애인 찬수(45)일가가 지난해 12월4일 싱가포르에서 펼쳐진 스탠다드차타드 싱가포르 마라톤 대회에 출전, 5시간16분22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었다. 찬수일가는 끈으로 손을 묶고 함께 된 전영배(제일은행남·용경제팀장)씨와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한 후 “마라톤으로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으며, 오는 2008년 중국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찬수일가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던 30대 초반 망막변성증(RP)이라는 희귀불치병에 걸려 시력을 잃고 2003년 회사를 그만두었다.

鍾天일가, 2개 마라톤대회서 우승

평택 사송친회 이사 종천(69)일가가 지난해 5개 마라톤대회(포스코스 42.195km)에 출전, 제5회 영남마라톤대회에서 3시간47분23초, 제7회 부산마라톤대회에서 3시간33분26초의 기록으로 각각 연령별 60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주일가, 기아구단과 10억원 계약 신인으로는 프로야구 사상 최고액

18세의 기주일가가 한국프로야구 사상 신인으로는 최초로 기아구단과 1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입단 전부터 신인 계약금 10억원 돌파, 등번호 10번 차지하기, 입단 첫째 10승 달성 등 10+10+10을 목표로 하여 관심을 끌었다.

중앙회 총무부장에 南玉일가



중앙총친회 珮洙회장은 지난해 10월25일 남옥(64년생)일가를 총무부장에 임명했다. 공안공파 후손으로 시조하 34세손, 김정고시로 고교와 대학에 합격할 정도로 강한 집념의 노력파이며 컴퓨터에 능통하다. 서울디지털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중(부동산학석사 과정)이며, 삼성그룹 삼성종합화학(주) 관리본부, 코오롱그룹 코오롱유회(주)연구소 관리과에서 근무했다.



친한 광덕산 정상에서 (壽甲일가 촬영)

청한산악회 A팀 눈 산행, B팀 온천욕

청한산악회는 지난해 12월25일 충남천안시광덕면에 위치한 광덕산(699m)의 눈발산행을 끝으로 2005년을 마무리했다. 당초 예정으로는 충남 서산의 도비산(352m)에 올라 간월호와 천수만 일대의 철새도래지에서 철새들의 장관을 보는 관광산행을 하려고 했으나, 서해안 일대의 폭설로 산행이 어렵다는 승문에 따라 광덕산으로 바꾸었으나 그곳에도 20cm의 적지않은 눈이 덮여있었다. 광화문에서 버스로 아침 8시에 출발, 10시

경 광덕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하니 그곳에도 눈천지였다. A,B 두팀으로 나뉘어, 눈발산행에 자신있는 A팀은 10시10분 출발하고, B팀은 아산온천에 다녀와서 오후 1시 합류하기로 했다. 등산로 주변은 20cm 정도의 눈이 쌓여 사갈(아이젠)을 착용했는데도 중간 중간 급경사를 지날 때마다 쉬엄 쉬엄 힘들게 오르고 내려와야 했다. 힘겹게 정상에 오르니 짙은 운무와 매서운 찬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훨씬 넘게 느껴져 간단히 정상수를

나누고 바로 하산해야만 했다. 이러한 약조건하의 정상에서도 두 청년이 노천매점을 차려놓고 등산객들에게 라면과 막걸리를 팔고 있었다. “인간 도처 유청산이라더니, 눈 버는 재미는 이런것인가비어” 예정보다 늦게 1시20분에 집결하여 10분 거리의 매당고을(망덕면매당리) 식당에서 특선매뉴 오리탕 전골로 피로를 풀고 추위를 녹였다. 현수회장으로부터 2006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저녁 7시 귀경했다. (相)

종보사업현황

수 입			
과 목	예 산	누 계	예산대비집행율
개인성금	18,310,000	15,850,000	87%
단체성금	8,000,000	6,960,000	87%
광 고 료	5,000,000	400,000	8%
합계		23,210,000	
수입-지출		1,972,227	

지 출			
과 목	예 산	누 계	예산대비집행율
수 당	6,900,000	5,230,000	76%
편 집 비	900,000	70,000	8%
인 쇄 비	9,200,000	6,286,000	68%
발 송 비	7,080,000	7,427,160	105%
용 역 비	2,300,000	2,130,613	93%
잡 비	100,000	94,000	94%
합 계		21,237,773	

세입세출 실적표

수 입			
관	항	11~12월	누계
회 비	운영비, 회의비	10,780,000	28,070,000
찬 소 금	일반, 유적	9,900,000	36,910,000
기본재산	토지, 건물임대료등	4,226,000	18,806,000
종보사업	종보비, 광고료등	3,115,000	21,500,000
문화사업	영상록, 대동보등		4,490,000
기 타	잡수입	17,917,493	19,679,829
합 계		45,938,493	129,455,829
수입-지출		-12,689,353	-30,651,892

지 출			
관	항	11~12월	누계
회 의 비	각종회의비	5,786,650	14,316,985
경 상 비	임금, 관리비등	10,372,980	72,247,094
현창사업	제전비(세향)등	18,886,670	29,981,470
종보사업	인쇄비, 발송비 등	1,850,311	19,604,123
문화사업	역사영상록 등		
현안사업	홈페이지운영비 등		4,750,620
기 타	가수금, 부가세예수금		1,176,810
예 비 비	과목외	9,977,920	18,030,619
합 계		46,874,531	160,107,721

장학기금 납부내역(11~12 월)

고유번호	이 름	금 액	총합계
1645	간석(경남 창원시)	3,000,000	3,300,000
43	선종(전북 김제시)	1,500,000	3,000,000
1717	영소(경북 경주시)	1,000,000	2,000,000
122	기린(경남 창원시)	1,000,000	2,000,000
97	국렬(전북 완주군)	500,000	1,600,000
37	경석(서울 강남구)	1,000,000	1,500,000
160	선후(서울 도봉구)	750,000	1,020,000
1000	태교(서울 노원구)	1,000,000	1,010,000
448	남원종중(참의공파)	1,000,000	1,000,000
503	경수(경기 양주시)	1,000,000	1,000,000
563	상엽(경기 군포시)	100,000	600,000
1628	재섭(서울 마포구)	100,000	500,000
1155	윤수(전북 전주시)	200,000	430,000
935	상진(경기 평택시)	50,000	350,000
1573	상동(경기 화성시)	50,000	350,000
803	주섭(대구 달서구)	80,000	210,000
549	석우(서울 강서구)	50,000	200,000
1081	기운(강원 강릉시)	20,000	190,000
1613	유철(서울 강남구)	30,000	180,0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160,000
499	익산시종친회	100,000	100,000
1712	재수(인천 서구)	50,000	100,000
1782	형수(충남 연기군)	100,000	100,000
1715	남원시종친회	50,000	100,000
386	덕근(서울 종랑구)	10,000	80,000
1783	영희(서울 서초구)	80,000	80,000
784	만선(서울 동대문구)	10,000	60,000
466	은섭(인천 강화군)	10,000	60,0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50,000
1747	승수(경기 파주시)	30,000	40,000
1655	백수(서울 강남구)	20,000	20,000
986	귀조(서울 광진구)	10,000	20,000
1781	영화(서울 구로구)	20,000	20,000
총합계		263,205,000	

개인종보비(2005.11~12 월)

순(서울 성동구)	100,000
태만(제주 북제주군)	100,000
백삼(서울 은평구)	100,000
인숙(전북 정읍시)	100,000
상용 이사(강원 춘천시)	100,000
영희(서울 서초구)	80,000
태진 이사(경북 구미시)	50,000
백수(서울 강남구)	50,000
상진(경기 평택시)	50,000
재수(인천 서구)	50,000
병두(경기 안성시)	50,000
기원 운영위원(부천시 회장)	50,000
천덕 이사(경기 화성시)	50,000
남수 자문위원(서울 종로구)	50,000
만영(경기 성남시)	50,000
덕수(경기 평택시)	50,000
기대(서울 강동구)	30,000
상희(충남 부여군)	30,000
건동 이사(서울 강천구)	30,000
기홍(서울 성동구)	30,000
준개(경기 광명시)	30,000
제약(경기 안양시)	30,000
상우(대구 중구)	30,000
종천 이사(경기 평택시)	30,000
병택(서울 동대문구)	20,000
승수(경기 파주시)	20,000
규정(서울 구로구)	20,000
정색(충남 연기군)	20,000
기창 운영위원(충남 당진군)	20,000
찬핵(서울 종로구)	20,000
병진(경기 성남시)	20,000
상현(서울 마포구)	20,000
상근 운영위원(서울 강동구)	20,000
상철(대구 남구)	20,000
휴동 고문(대전 중구)	20,000
윤우(서울 강동구)	20,000
일광(경기 성남시)	20,000
선우(대전 서구)	20,000
윤우(대전 서구)	20,000
상우 이사(대구 동구)	20,000
요육(서울 마포구)	20,000
모섭(경기 안산시)	20,000
유철(서울 강남구)	20,000
상원(강원 춘천시)	20,000
국태(경기 성남시)	20,000
종수 이사(서울 서대문구)	20,000
주해(서울 서초구)	20,000
노섭(경북 포항시)	20,000
기홍(서울 동작구)	20,000
황규(충남 홍성군)	20,000
재색(경남 함양군)	20,000
주동(경북 예천군)	20,000
필교(광주 남구)	20,000
규철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20,000
일영(경북 구미시)	20,000
순재(서울 마포구)	20,000
경희(충남 서산시)	20,000
상안(경기 화성시)	20,000
영소 이사(경북 경주시)	20,000
주섭(대구 달서구)	20,000
원우(경남 진주시)	20,000
규현(대구 북구)	20,000
철수(서울 노원구)	20,000
상득(서울 용산구)	20,000
수남(서울 마포구)	20,000
명득(서울 영등포구)	20,000
용우 운영위원(고성군 회장)	20,000
오룡 이사(서울 성동구)	20,000
경례 이사(서울 관악구)	20,000
대핵(서울 서대문구)	20,000
덕핵(서울 광진구)	20,000
용색(서울 강동구)	20,000
상동(서울 금천구)	20,000
상현(충남 당진군)	20,000
재색(서울 동대문구)	20,000
석외(부산 사하구)	20,000
은색(서울 동작구)	20,000
용규(경북 영천시)	20,000
대현(경북 영천시)	20,000
남하(서울 강북구)	20,000
병규(서울 관악구)	20,000
기춘(서울 강천구)	20,000
재원(경북 영천시)	20,000
석우(서울 강서구)	10,000
덕수(서울 도봉구)	10,000
만선(서울 동대문구)	10,000
용섭(서울 서대문구)	10,000
은섭(인천 강화군)	10,000
상룡(충북 음성군)	10,000
홍색(대전 중구)	10,000
창남(서울 강서구)	5,000
합 계	2,575,000

운영회비(2005.11~12 월)

오작 부회장(부산시 회장)	1,000,000
춘식 부회장(예빈윤공파회장)	500,000
백춘 부회장(문정공파 회장)	500,000
상서 부회장(서울시 회장)	500,000
장훈 부회장(충북도 회장)	500,000
상욱 부회장(충남도 회장)	500,000
선교 부회장(충성공파 회장)	500,000
상룡 부회장(청년전담)	500,000
학수 부회장(경기도 회장)	500,000
준석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300,000
규철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300,000
수교 이사(경도공파 회장)	300,000
판현 부회장(광주시 회장)	200,000
기후 운영위원(충남 홍성군)	200,000
윤수 운영위원(전북 전주시)	200,000
영수 운영위원(강원 춘천시)	200,000
기원 운영위원(부천시 회장)	200,000
상운 운영위원(서울 동작구)	200,000
덕우 운영위원(충남 아산시 회장)	200,000
이택 자문위원(경기 용인시)	100,000
판현 부회장(광주시 회장)	100,000
상교 운영위원(대구 중구)	100,000
구현 운영위원(경남 진주시)	100,000
기수 운영위원(전북 진주시)	100,000
은수 운영위원(경기 김포시)	100,000
태섭 운영위원(부산 북구)	100,000
명수 운영위원(강원 춘천시)	100,000
비 운영위원(예산군 회장)	100,000
동석 운영위원(금산군 회장)	100,000
달수 운영위원(고양시 회장)	100,000
태진 이사(경북 구미시)	100,000
상용 이사(강원 춘천시)	100,000
동영 이사(서울 영등포구)	100,000
임동 이사(경기 남양주시)	100,000
상동 이사(경기 화성시)	100,000
영소 이사(경북 경주시)	100,000
종수 이사(서울 서대문구)	100,000
동진 이사(광주 남구)	100,000
건동 이사(서울 강천구)	100,000
종천 이사(경기 평택시)	100,000
오룡 이사(서울 성동구)	100,000
상경 이사(수원노림익성종중)	100,000
상근 이사(수원노림익성종중)	100,000
남희 이사(수원노림익성종중)	100,000
영수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봉수 이사(충남 아산시)	100,000
윤동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기대 이사(서울 서대문구)	100,000
경례 이사(서울 관악구)	100,000
영철 자문위원(서울 성동구)	50,000
합 계	10,350,000

유족보전현성금(2005.11~12 월)

예빈윤공파(춘식)	1,000,000
-----------	-----------

단체종보비(2005.11~12 월)

수원평해공종중	400,000
경남종친회(기린)	300,000
당진군종친회	200,000
원주시종친회	200,000
원주시종친회(윤수)	200,000
장도공군포종회수교	200,000
진주시종친회	200,000
서산시종친회	100,000
남해군종친회(일균)	100,000
청강군종친회	100,000
수원노림익성종중	100,000
김포시종친회(영수)	100,000
남원시종친회	50,000
합 계	2,250,000

일반찬조 현성금(2005.11~12 월)

한수 회장(중앙회장)	2,000,000
태수 고문	1,800,000
춘식 부회장(예빈윤공파회장)	1,000,000
강영 상임고문	1,000,000
만우 자문위원(세마공파 회장)	800,000
상욱 부회장(충남도 회장)	800,000
동관 고문(강원 강릉시)	500,000
춘식 부회장(예빈윤공파회장)	500,000
희경 부회장(여성 전담)	500,000
영하 고문(대전 서구)	300,000
우선 부회장(문화전담)	300,000
창섭 자문위원	300,000
상룡 부회장(청년 전담)	300,000
상서 부회장(서울시 회장)	200,000
천안시종친회	200,000
합 계	10,500,000

2006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

- 1. 자격**
청주한씨 및 외가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정규 4
년제 대학교(수간) 및 고등학교 재학생과 신입생
 - 2. 구비서류**
 - 1) 장학생 신청서(본회 양식) 1통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전년도 성적증명서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 4) 추천서 (광역시· 도종친회, 분승 및 단위장학회장, 학교장 또는 학과장)
 - 5) 재산세 과세 및 비과세 증명서 1통
 -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2006년 3월6일까지 청주한씨 각 광역시· 도종친회, 분승, 단위장학회
 - 4. 최종접수 마감**
2006년 3월24 일까지 (재)청한장학회 사무실 (중앙종친회 내)
 - 5. 선발 결과 통지**
이사회에서 심사 후 선발된 학생에게 4월10일까지 개별 통지
 - 6. 기타** :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6. 1.

(재)청한장학회 이사장 한 현 수
청한장학후원회 회 장 한 양 명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며 “청주한씨한글판족보”를
사기판매하는 자가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최근 ‘청주한씨족보연구원’에서
발간한 “청주한씨한글판족보” 구입
을 권유하는 ‘팩스’ 전송이나 전화
가 걸려온다는 사례가 본 중앙회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본 중앙종친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재 중앙종친회가
소장, 관리하고 있는 “제6교대동족
보” 만이 ‘청주한씨족보’ 의 정통성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7교인타넷한글대동족보’ 가
새로 편집, 구축되어 지난 2005년2
월7일 설날을 앞두고 1차 개통을 하
여 현재 ‘인타넷’ 세계에서 검색,
조회되고 있습니다. 일가 여러분께
서는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는 사기
판매에 속지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존경하는 일가님들에게

신년초부터 한준수씨의 '질문서'라는 내용 등으로 종사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제기되어 심려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준수씨가 제기한 한현수회장의 계대와 가계는 이미 2000년에 운산한씨가 제기한 문건으로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는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수씨 자신이 현수회장의 가계와 계대는 확인한 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정당하다는 인증서(공증)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3년2월27일 총회에서 양명, 준수, 현수 3인이 회장 경선을 할 때에도 준수씨 자신이 기권하면서 현수회장을 추대하고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회장과 중앙총친회를 왜곡하고 모략증상하는 준수씨의 일련의 언행은 청주한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송행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청주한씨 양절공(화)파송회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유사송회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준수씨는 계속 회장직을 사창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절공 분송의 재산권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유발된 운산한씨의 관계로 양절공(화)파, 공안공파 회장 명의로 준수씨가 3회에 걸쳐, 운산한씨가 계대와 소목이 틀리고 년대가 맞지 않으며 양절공과 후손으로 입보된 것이 잘못되었으니 제척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중앙총친회를 상대로 제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중앙총친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대동축보증수보편찬위원회 임시총회를 소집, 여러 자료를 통해 운산한씨가 양절공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제척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는 편찬위원 총 89명 중 48명(참석 28명, 전화위임 20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져 일단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당시 참석자 중 8명이 편찬위원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전화위임한 3명도 위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제척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2년6월18일 권한대행인 양명회장이 주재한 대의원총회에서 제척결의 철회를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정관에도 없는 권한대행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원천무효이며, 운산파 제척결의 철회 자체도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현수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준수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현수회장은 중앙총친회 회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위증을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재판정에서 양명권한대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 직무수행을 했으며, 운산한씨 제척결의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확인됨으로써 철회를 결의한 것 또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수씨는 대동축보증수보편찬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임시총회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현수회장은 엄연한 사실이 회의록에 기록되어있는 공문서를 위조하라는 부당한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때부터 앙심을 품고 현수회장의 가계를 문제 삼아 청주한씨가 아니니까 회장 자격이 없다고 소송내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준수씨의 패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후, 준수씨에 의해 압류 당한 중앙총친회의 예금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말만 일부 바꾸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현재까지도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여 중앙총친회 재정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가 다시 제기한 소송은 2003년2월27일 총회가 권한이 없는 영수 전 회장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그 총회에서 선출된 현수회장의 자격도 무효이며 또한 계대와 가계가 틀려(이미 패소한 소송내용과 동일) 송원자격이 없으므로 원천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 역시 준수씨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으나 다시 상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현수회장의 가계와 계대에 대해서는 준수씨 자신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확인하고 인증서까지 해수었다고 하며, 운산한씨도 송보에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부터 족보에는 오·탈자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6교대동보에는 현수회장의 조부님이 英字數字이고 字는 光鎬이며, 선친은 泰字 錫字에 字가 壽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교대동보에 양쪽으로 오류가 되어서 증수보에서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名과 字가 같으니까 동일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며, 형제가 한 여자를, 또는 형제가 자매와 살았다는 식의 족보 등재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회장의 말대로 동생이 형 보다 나이가 많고, 부친 사후 47년만에 태어나는 자식이 등재되는 족보가 오식이 아니고서야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직생활 30여년, 군수까지 지낸 준수씨가 현수회장과 중앙총친회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소송과 유인물의 배포 등 일련의 언행에 대해 많은 종원들은 좋지않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중앙회장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준수씨는 패소했습니다. 그 동안 현수회장은 물론 중앙총친회가 입은 명예의 상처도 컸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지난 몇 년간 중앙총친회를 대표해 온 회장에 대해 계속 자격분쟁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중앙총친회의 법인격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준수씨의 자송과 함께 일가분들의 깊은 이해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일가님!

현수회장은 육교대동보 편찬시 건수 전회장의 요청으로 여의도 신송빌 당에 60평 사무실을 자비부담으로 마련하여 족보편찬사업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서울시총친회장 재임시에는 22개구 친친회를 조직,구성하였으며 중앙총친회를 4번째 제임을 하면서 송친회 발전과 화합에 진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준수씨의 "질문서" 건은 현수회장 본인은 물론 조상님과 관련된 후손들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수회장 자신도 부덕의 소지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있게 된데에는 현수회장의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분의 명예와 화합을 위해 이제 더 이상이 문제가 재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6년 1월 일

회장단회의(2005년 11월 24일 개최)에 참석한 회장단 일동

일가들께서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청주한씨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우리들의 송보(宗報) '청주한씨보' (淸州韓氏報)는 80만 일가들의 '정성'(精誠)을 먹고 유지되고 성장해가는 한분(韓門)의 유일한 소식지(消息紙)입니다.

그 '정성'은 바로 일가분들이 1년에 단 한번 보내주시는 2만원의 '송보비'이며 그것이 '송보'의 명맥을 이어주는 양식(糧食)입니다.

'송보'를 받아보시는 일가분들께서 이 '정성'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청주한씨보'는 홀로 자립하여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갖고 일가분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일가분들의 '정성'은 또한 중앙총친회가 송보제작에 지원하는 재정적 부담도 훨씬 덜어줄 것입니다. 각 지역, 각 종파의 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일가분들을 독려하신다면 '정성'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송보'는 일가분들의 '정성'으로 홀로 서고 싶어 합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한현수(청한중앙총친회) 847301-04-000631

'청주한씨보' 발행인 한현수(중앙총친회장)

편집인 한동원(송보담당 부회장)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과 각 종파의 행사,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 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자영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일가분들과 그 밖의 모든 일가분들 중에서 송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앙총친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취재하여 홍보기사를 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 편집실〉

중앙총친회 내방 일가

- | | | |
|-------------|-------------|-------------|
| • 聖愚 경기 연천군 | • 炳雄 서울 중랑구 | • 光寅 인천 강화읍 |
| • 基燦 경기 성남시 | • 成龍 경기 성남시 | • 三省 서울 강서구 |
| • 成相 경기 군포시 | • 鶴愚 경기 군포시 | • 在龍 인천 남동구 |
| • 圭一 서울 서대문 | • 求真 경기 고양시 | • 載殷 경기 안성시 |
| • 相德 서울 관악구 | • 淳 서울 성동구 | • 相根 서울 강동구 |
| • 喆洙 서울 관악구 | • 相炫 서울 강남구 | • 在熙 강원 횡성군 |
| • 槲泰 충남 천안시 | • 奎華 서울 강동구 | • 仁秀 서울 강북구 |
| • 文植 경기 안산시 | • 璘洙 충남 태안군 | • 相鶴 충남 서산시 |
| • 吉洙 서울 광진구 | • 상두 서울 중구 | |

청주한씨보감(수첩) 제작에 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중앙총친회가 발간을 준비중인 '청주한씨보감(寶鑑)'은 2005년 11월 현재 자료수집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감 임원록에 게재할 사진과 관련자료를 보내지 않은 임원들이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청자료 : 사진, 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파명(支派名).
- 접수마감 : 2006년 3월 30일
- 접수 및 연락처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02-720-6370~1)
- 기타사항 : 중앙총친회 제21대 임원명단(「청주한씨보」 제154호, 155호, 156호)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진과 함께 변경사항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내용 : 계대표, 왕비록, 상신록, 부마록, 향렬지(行列字)대조표 등.

청주한씨중앙총친회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실시간 입력·검색시스템의 재구축 작업으로 다소 지연, 수단 접수는 계속중”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0,000 원 입니다.

▲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하여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10cmX15cm=4인치 X 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을 족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 (1) 직계·촌수 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 (2)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 (3) 국·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4)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벌 인구수 등의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다.
- (5)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및 가족사진도 볼 수 있다.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 ‘클릭’ 하면 ‘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시고 잘 되지 않으면 중앙종친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8월말까지 접수된 ‘인터넷족보’는 1월20일 개통 순연 수단비는 8천원, 입력된 족보는 순차적으로 개통 예정

▲ 중앙종친회는 현행 인터넷족보시스템의 단점을 개선, 실시간 입력·수정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과 시스템의 재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입력·수정방식이란, 수단 접수와 동시에 내용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족보를 검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전과 같이 입력한 후 검색하기까지 몇 개월씩 걸리는 3차 개통, 4차 개통 등의 용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족보 수정, 신규입보 등이 상시적(常時的)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이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정보와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종보(宗報)를 통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개선된 시스템의 재구축 추진관계로 지난 10월에 예정했던 3차 ‘인터넷족보’의 작업 지연으로 오는 12월중 개통될 예정이며, 11월 중순까지 접수된 수단까지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립시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조상을 찾아 드립니다

현수회장, “족보 없으면 ‘뿌리’ 없는 자손 됩니다”

우리 청주한씨는 기자(箕子)조선과 마한(馬韓)을 거쳐 이어온 왕족의 후예로서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왕비, 상신(相臣), 공신, 장상(將相)들을 배출한 명문거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가들은 누구나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훌륭한 조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모셨음에도 너무나 많은 일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뿌리’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종친회는 현재 국내외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80만 일가들의 호응속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중앙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의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는 일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琚洙 중앙종친회장은 최근 종보 편집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주한씨는 80만명에 달하는 대성(大姓)인데 대동족보에 등재되어있는 일가는 불과 10만명 미만이니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일가들이 훌륭한 조상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자손들에게 조상의 ‘뿌리’를 설명해줄 수 없었던 그동안의 비애(悲哀)를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琚洙 회장은 특히 ‘수단(收單)과 함께 조상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 등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을 「인터넷족보」에 올리면 대대손손 자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상의 뿌리와 가정의 내력을 동영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족보가 없으면 대대손손 ‘뿌리’ 없는 자손이 되니 모두가 나서서 모르고 있는 일가들에게 알려주어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 서자’고 호소 했습니다.

‘뿌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족보가 없거나 몰라도 선조님의 함재(銜字·이름)만 알면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뿌리’를 찾아드리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중앙종친회로 연락을 주시기나 방문해 주십시오.

〈연락처〉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위원회
(02) 720-6370, 6371, 9215

드디어 출판!!



석봉선생 일대기 「석봉한호의 생애」

400년만의 집대성(集大成)
선생의 행적을 더듬어 20년!

떡장수 어머니의 눈물어린 편달로 소년 한석봉을
서성(書聖)과 공신(功臣)의 반열에 오르게한 사랑과
각고(刻苦)의 참된 교훈



社團 石峯韓濩先生記念事業會
구입문의 : 02)732-1822(代)
02)497-8102

본문 : 400페이지/ 4×6배판/ 120센스크림/ 원색/ 양장제본
부록 : 270페이지/ 4×6배판/ 150스노우/ 원색/ 양장제본